

“빈 주택 게스트하우스 활용 광주민의 향수 담을 것”

협동조합 만들어 광주 동구 마을재생 프로젝트 추진 박성현 신시와 대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광주시 동구에는 60~70년대 도심을 간직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협동조합 ‘신시와 커뮤니티’는 문화전당이라는 ‘그릇’에 담길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던 철도 폐선부지에 다양한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에 작은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찻집 겸 문화공간인 ‘신시와(瓦)’는 작가들과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문학 강연을 듣고 작품을 감상하며 삶과 문화를 소통하는 장소가 됐다. 지난 1969년에 지어진 한옥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고풍스러운 한옥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채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불잡았다.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를 종 감독을 맡았고 현재 광주 구도심 생활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박성현(51) 신시와 대표는 도심재생에 있어 주민참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주민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며 과거와 문화를 잘 아는 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며 즐거워할 때 주민도 지역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세미나를 열어 지역민에게 교육하는 방식은 참여를 이끌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그는 과거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을 보존하며 문화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낡고 쇠락한 이미지의 구도심이 아닌 지난 시간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도심에 방치된 빈 주택을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에 비엔날레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지만 ‘광주와 광주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서다.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방문객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는 문화전당을 찾는 이들이 전당 밖에서도 광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 협동조합까지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개발이 아닌 주민이 주도한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모였다.

여수 출신으로 큐레이터로 활동했던 신 대표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도심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예술이 현실과 과거된 채 독자노선을 걷는 게 아닌 삶 속에서 함께 울고 웃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낡고 사소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에서 건강한 문화 소재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북구청,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닭·오리고기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과 직원들이 닭·오리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광주시 북구 유동 오리요리의 거리의 한 오리전문점에서 오리오리를 먹었다. (북구청 제공)

LH 광주전남본부, 여수 방제작업 자원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노홍렬) 빛고을나눔봉사단이 5일 여수 기름유출 피해지역을 방문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방제작업 자원봉사를 펼쳤다.

빛고을나눔봉사단은 이날 현장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여수를 방문, 기름유출 사고 해안가에서 바위와 돌, 모래에 흡착된 기름을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노 분부정은 ‘현장에 와보니 언론에서 접한 것보다 훨씬 피해가 커 보인다’며 “5일과 6일 이틀간의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지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모여라꿈동산’ 공부방 지원활동, ‘멘토와 교마친구’ 아동멘토링 봉사활동, 장성자리미마을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봉사활동으로 지역민에게 다가설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4년만의 고교 졸업장

서석고, 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에 명예졸업장

“교도소에 면회왔을 때도 울지 않던 어머니가 고교 졸업장을 받는다는 이야기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늦게나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게 돼 기쁩니다.”

20여년 전 전교조 탑합 항의 시위를 주도하고 고등학교에서 제적당한 강위원 광주 광산구노인복지관 관장이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강 관장은 서석고 3학년 재학 중이던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탑압하자 광주 지역 49개교 학생 대표들을 모아 ‘참교육 실현과 해직 반대’를 위한 광주 지역 고등학생 대표자협의회(광고협) 구성을 주도하고 초대 의장으로 맡겼다.

경찰은 광고협을 폭력 세력으로 규정해 강 관장을 구속했으며, 옥살이 도중 학교는

강 관장을 제적했다.

그는 6개월 복역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성고시를 거쳐 1994년 전남 대 국문학과에 입학, 학생운동에 나섰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이어 1997년 당시 대학생기구 대표조직이었던 한총련 5기 의장에 선출되어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하지만 같은 해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강 관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 2개월 만에 출소했다.

출소 후 전국 대학가를 돌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강연 활동을 했다. 현재는 노인복지공동체인 영광의 ‘여민동락’과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서석고가 받아들여 제적 처리된 지 24년이 지나 명예 졸업을 하게 됐다.

졸업식은 6일 열리며, 당시 전교조 광주 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장휘국 광주 시교육감 등 전교조 관계자들이 나와 축하할 예정이다.

/박정숙기자 jwpark@

광주여상, 금융회계 특성화 ‘효과’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28명 합격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나정식)가 금융 전문 자격증인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대거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여상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제20회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학생 53명이 응시해 28명이 합격했다.(사진)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은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업계 종사자나 대학교 상경계열 3~4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20% 이하로 알려져 광주여상의 합격률이 더욱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여상은 2013년 한 해에만 펀드투자상담사 114명, 증권투자 상담사 57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나정식 교장은 “금융회계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이 정부의 고졸 취업지원정책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취업률 보다는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등 좋은 직장에 보다 많은 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광양시

◆4급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병철 ▲안전행정과 황학범

◆광양읍 이노철

◆5급 승진임용 교육대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병환 ▲안전행정과 강금호 ▲안전행정과 장충세 ▲환경정책과 김경철 ▲보건 행정과 이동현 ▲건설과 장영부 ▲환경정책과 서경철 ▲농업지원과 송재부 ▲기술보급과 이수호

◆강진군

◇승진(4급 서기관) ▲환경축산과장 김종열

◇승진(5급 사무관) 의결 ▲칠량면장 직무대리 김영진

◇진보(5급 사무관) ▲기획홍보실장 박재룡 ▲문화관광과장 임경태 ▲총무과장 박석환 ▲강진읍장 김정식 ▲의회사무과장 윤순학

광주도시공, 우수 공기업 ‘대통령상’



김화진 화순발효햇살조합 상무

전남도협동조합연합회 초대 회장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간 협력체로 출범한 전남도협동조합연합회 초대 회장에 김화진 화순발효햇살조합 상무이사가 선출됐다.

전남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창립식을 갖고 김화진 회장을 비롯,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고, 집행부 임원 4명의 선출권은 이사회에 위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협동조합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회장은 “회원 권리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역할에 충실히하고 조합 상호간 협력과 이해 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박명곤(용진유학)·김용자씨 장남 협철(전남대 치의학전공대학원)군 김용태(광주기관단체장홀리클럽운영 위원장)·염자순씨 장녀 협성(광주지방검찰청)양=8일(토) 낮 12시 40분 헐리데이 인 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동창동문회

▲정광중·고 문동희 회장인(회장 김세옥)=12일(수) 오후 6시 30분 창평국립(광산구 도산동) 010-6800-0182(총무).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 전남 지원 이화회(회장 이승봉) 월례 회의=11일(화) 오후 6시 017-601-2266.

▲진주강씨 광주전남 청년회(회장 강지훈) 월례회=12일(수) 오후 5시

30분 종회 사무실 062-228-3368.

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 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끌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 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

352-3029.

모집

▲광주노인지도자대학 제28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남녀 누구나(선착순 60명), 모집 기간은 28일(금)까지, 입학원서·증명사진 1매·주민등록증·사본 제출, 수업시간은 매주 수요일(2시간·수업료 무료·교재료 062-652-7374).

▲광주불교교육원 2014년도 불교 문화대학 신입생=교육대상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1년 과정), 강의 시간은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월 1회 불교문화 협장학습 실시 062-228-9098.

▲동구자원봉사센터=전문봉사단 육성 교육·면접-동화구연·수지점, 교육 후 봉사활동 가능자, 경로당 전문강사모집-건강증진·여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전문재능봉사단 모집-교육·문화·이미용·주거환경 개선·면접, 원서접수는 2월 한 달, 8월 한

선·마사지·홍보 등 모집 기간은 28일(금) 062-228-1365.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월 25일(화·1차), 2월 4일(2차), 오후 6시30분~9시, 광주대 호심관 7층 (707호) 양택, 음택·수백·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정법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상·영상 강의(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한국노후생애대학원 8기 학생 모집 요강=교육과정은 생활영역·국선도 치매예방·풍수·명리학·음양오행·노후생애설계·노인상담심리학, 대상은 노후준비·희망자·열정 있는 중장년·건강한 은퇴자(정원 35명·선착순)이며 고졸이상 50~70대 중반, 출생서류 및 입학필자는 입학원서 및 면접, 원서접수는 2월 한 달, 8월 한

달, 합격자 발표는 문자로 개별통지, 장소는 광주 동구 대의동에술길31-11(동부경찰서 옆 신세계영화관 7층) 062-223-1357, 010-2646-5023.